

데님의상의 현대문화사적 분석

이 효 진

전북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n Analysis of the Denim Clothing Considered from the Contemporary Culture

Hyo-Jin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4. 7. 23 투고)

ABSTRACT

This study aims at considering and analyzing the stature of denim clothing as an ornament as well as how aesthetic meaning and human being's mental side indwell in the development of denims, which will be proceeded in the future, from the view of contemporary culture of dressing.

It is found that the stylishness expressed through denim clothing is formed on the basis of the cultures of party, drawing and disorganization, and the result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ly, the culture of party became the source of for decoration of denim clothing, and denim clothing more glamorize women as a party-look which makes the most use of its advantage to be comfortable and able to display in various ways with splendid artificial jewelry, patchwork, dyed pattern which is elaborately embroidered.

Secondly, Such culture of drawing is applied to denim clothing so that denims are expressed to make people feel more human being's warmth as being free from the existing stereotype and formality.

Thirdly, the most outstanding feature of denim clothing showed in the culture of disorganization is to make the most use of vintage style as it is. This reflects an image of the culture of disorganization under postmodernism, which is free from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the existing dressing by destroying the original form, in the way of slashing, making a hole and tearing.

That is, people can sufficiently express not only free sense of release based on postmodernism by wearing denim clothing, but also human being's intrinsic desire for restoration of humanism or human warmth with splendid decoration or various techniques such as handicraft. It can be recognized these features as the reasons, that make denim clothing place themselves as an original fashion item, by giving denim clothing technical decoration in recent years.

Key words : denim clothing(데님의상), the culture of party(파티문화), the culture of drawing(그리기 문화), the culture of disorganization(해체 문화), handicraft techniques(수공예기법)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세기 이후 현대인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다원화 경향으로 흐르면서 사회·문화적인 모든 요소들 또한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다원화 경향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대중적인 의상의 하나였던 데님의상이 중요한 패션 트렌드로 부각되면서 20세기 후반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비중 있는 패션아이템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렇게 데님의상이 하이패션에서 비중을 가지게 되면서 최고급원단과 섬세한 수공예적 기법으로 장식되어 기존의 데님의상과 차별화되며 발전해왔다.

패션은 변화하는 사회의 움직임을 가장 민감하게 나타내는 문화코드로 데님의상 열풍은 편안하고 기능적인 일상복뿐만 아니라 매력적인 하이패션에서 동시에 성장해 왔으며 데님의상의 장식화 경향은 21세기에 들면서 더욱 눈에 띄게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세대와 유행이 변화해도 이미지를 달리한 데님의상은 언제나 패션계에 민감한 트렌드 아이템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대 물질문명사회의 무미건조하고 대량생산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고싶은 현대인들의 욕구를 의상을 통하여 표출함으로써 수공예적 요소에서 느끼는 과거에 대한 향수와 인간적인 친화, 그리고 정신적 위안 등을 찾고자하는 요인으로 고찰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적 요소에 대한 갈망의 욕구와 더불어 화려하게 장식화 되어가는 데님의상에 내재된 미적 의미를 연구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복식사 관점에서 장식화 된 데님의상의 위상과 앞으로 전개되어갈 데님의상의 발전 속에 미적 의미와 인간의 정신적 측면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고찰·분석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논문들과 간행물, 그리고 인터넷 자료에 의한 이론적 배경을, 패션잡지에서 추출한 사진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에 의하였고 연구범위는 21세기로 한정지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써 동일전공분야에 신뢰도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가진다.

II. 데님의상의 개념과 변천

1. 데님의 개념

데님(denim)은 고대 직물의 중심지인 프랑스의 Nemes 지방에서 생산되는 능직의 면직물을 'serge de Nemes'라고 부른 것이다.¹⁾ 이것이 미국화되어 denim이 된 것을 말하며 이외에 dungaree는 힌두어의 dungri로부터 나온 것으로 올이 성근 무명천을 말한다. 이는 원래 선원용 작업복에서 사용된 것으로 덩가리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덩가리로 만든 의복을 가리킨다.²⁾ 사전적 의미의 데님은 경사에 인디고 염색을 한 10-14번수의 굵기의 실을 사용하고 위사로 12-16번 굵기의 실로 능직으로 짠 직물을 말하며 원래 데님이란 명칭은 실을 염색한 직물이 아닌 거친 피륙을 염색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³⁾ 흔히 진(jean)이라는 말과 데님이라는 말을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진은 능직으로 짠 모든 면직물을 의미하며 데님은 능직의 한 종류로 청바지 등의 소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진이라는 말은 블루데님을 즐겨 입었던 이태리 선원 'Genoese'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이태리산(産) 면바지를 입었던 제노바 사람을 가리키는 불어의 'Genes'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⁴⁾

2. 데님의상의 변천

우리가 데님이라고 하면 먼저 진을 떠올리게 되는 데 진은 원래 골드러시(gold rush)⁵⁾시대에 금을 캐기 위해 미서부에 몰려들었던 광부들이 입었던 작업복이었다. 원래 텐트용으로 생산된 데님이라는 튼튼한 직물로 만들어진 이 바지는 광부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어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즉 커다란 공장을 세워 다양한 텐트용 천을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에게 어느 날, 한 상인이 찾아와 군부대에 납품할 텐트용 천을 주문했다. 막대한 양이라 좀 망설여졌지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상인과 계약

하고는 빛까지 얻어 텐트용 천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텐트용 천은 품질 검사 결과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유는 천의 색깔이 군에서 요구하던 녹색이 아니라 청색이었기 때문이었다. 스트라우스는 엄청난 빛과 창고에 쌓인 쓸모없는 천 때문에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있던 광부를 보고 '저렇게 심한 육체 노동을 하는 광부는 더 질긴 옷을 입어야 할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창고에 가득 쌓인 천이 스트라우스의 뇌리를 스쳤다. 즉시 스트라우스는 며칠 후 청색의 작업복을 들고 나타났는데 질기고 튼튼한 그 옷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스트라우스는 이 청색의 작업복에 블루진(blue jean)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의 블루진은 점차 일반화되어 1960년대부터 남녀 공용으로 널리 사랑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재단사 제이콥 데이비스(Jacob Davis)는 튼튼한 주머니를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바지 주머니를 단단히 고정시키는 리벳(rivet)을 발명, 1873년 스트라우스와 함께 이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였으며 리벳을 단 웨이스트 오버롤즈(waist overalls)를 생산 판매하여 호황을 누렸다. 즉 진을 구성하는 소재인 데님에 인디고 블루로 염색을 시작한 것, 바지 주머니를 금속 리벳으로 정한 것 그리고 뒷부분에 가죽 패치를 다는 등의 진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특성을 만든 것은 바로 <리바이스>였다.⁶⁾

소재가 질겨서 작업복으로 각광을 받았던 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젊은이들의 야성과 반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옷이 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진은 그 패턴이 매우 다양해지기 시작했으며, 청바지의 색깔도 바랜 블루부터 블랙 진까지 다양화되고 또 찢어진 진이 반향과 젊은 패션의 상징으로 자리잡는 등 패션을 선도하는 아이템이 되었다. 더욱이 젊은 문화와 안티 패션을 대표 하였던 20세기 전반의 고정된 이미지를 타파하여 20세기 후반에는 대중매체와 여가를 즐기는 젊은이 문화가 중요해지면서 가장 대중적인 패션 아이템인 진즈패션을 고급의류 디자이너들이 반체제문화의 스타일에서 독특한 하이패션 스타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 고급스러운 패션으로써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면

서 현대패션에서 창작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⁷⁾ 더욱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진은 캐주얼에서 벗어나 정장용으로도 입을 수 있는 옷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데님의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은 놀라울 정도이다.

이처럼 데님의상의 변신은 끝이 없는데, 그것은 데님 소재 자체가 가지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유분방한 느낌 때문에 시대가 변화해도 끊임없이 사랑을 받으며 지금에는 하이패션에서도 중요한 패션 아이템의 소재가 되고 있다.

특히 데님의상 중 청바지는 이제 누구나 다 잘 어울리는 대중의 옷이 아니라 톱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 개성을 추구함으로써 유행을 고려해야 하는 가장 민감한 트렌드 아이템이 되었다.⁸⁾ 청바지는 자유의 상징인 미국 문화를 중심으로 세계의 젊은 세대를 대변하며, 그것은 자유이며 평등이고 젊음이다. 보석과 자수를 장식한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진이나 넓고 헤어진 빈티지 진 역시 청바지의 여러 모습 중의 하나다. 인위적인 장식이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가미되어 청바지의 매력을 훨씬 더 발산하게 한다. 데님의상은 그 자체만으로는 촌스럽고 평범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환상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고급스러우면서 패셔너블한 이미지로 다양하게 교체될 수 있다. 새로운 유행의 브라질리언 진(Brazilian Jean)⁹⁾과 그 밖의 기발한 재료들로 인해 천의 얼굴을 갖는 데님의상은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다.¹⁰⁾

21세기 들어 핸드 크래프트(hand craft) 기법을 이용한 데님의상의 인기가 폭발적인데 그 이유는 각자의 개성이 강해지고 남들과 차별되는 자기만의 독특한 것을 갖기 원하는 소비자 층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¹¹⁾ 또한 장식이 아닌 데님의상을 완전 탈바꿈시킨 기법으로 독특한 워싱기법으로 미묘한 색상과 분위기를 이끌어 내며, 덧자수 처리되고 비즈나 인조보석, 유리, 진주 등으로 화려하게 처리한 데님의상의 전면이 등장하고 있으며 색상은 인디고 블루 혹은 빛바랜 블랙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앞으로도 저가격으로 다방면에 응용될 수 있는 신소재 데님의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의 개발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고가의 히트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Ⅲ. 데님의상이 부각되고 있는 문화적 배경

1. 데님의상과 파티 문화

데님의상은 20세기 후반이후 젊은이들의 야성과 반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캐주얼웨어의 대표적인 옷으로 받아들여졌으나 21세기 접어들면서 정장용 뿐만 아니라 의식이나 예식 등의 파티의상으로도 입을 수 있는 그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흔히 파티는 엘리트 의식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고급문화라고 여겨졌지만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과 함께 대중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왜곡됐던 파티문화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파티는 어떤 제약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이다. 파티는 낭비가 아니라 불황 코드에 맞는 '상생'의 놀이문화로 즉 특정 문화코드를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다.¹²⁾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파티는 디지털 패러다임 시대의 인간소외현상을 가져오는 인터넷의 모순을 일깨워주는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까운 이들과 혹은 현실공간에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파티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¹³⁾는 것이다. 파티는 스트레스를 풀거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다른 문화를 배우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으며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도록 해 개개인의 목적에 따라 좋은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임에서의 의상은 단 한번 입는 특수복이 아닌 당연히 편안하고 멋스러운 캐주얼웨어를 입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에 문을 연 '파티즌'은 크리스마스 파티, 할로윈 파티, 스위스 파티, 바비큐 파티, 1980년대 블루진 파티 등 다양한 테마로 끊임없이 새로운 파티를 선보이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파티 문화가 점차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한 사람을 위한 잔치에서 모두가 주인공인 파티로, 20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놀이에서 중·장년층, 가족들이 함께 하는 파티로 점차 그 모습을 만

들어 가고 있다. 형식적인 회식문화가 싫은 20-30대 학생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교적이고 자유로우며 재미있는 '파티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양한 테마들의 파티가 있지만 불변의 테마는 '카르페 디엠(carpe diem)'으로 인생을 즐기라는 뜻인 그냥 편안하게, 다른 사람 눈치안보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파티를 즐기는 것이다.¹⁵⁾ 즉 한국의 잔치 문화가 좌식의 정적인 형태였다면 월드컵 때의 길거리 응원이나 카퍼레이드 등에서 나타나는 동적인 에너지는 서양에서의 스탠딩 파티와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파티의 핵심은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¹⁶⁾

더욱이 클럽파티가 성행하면서 그에 따른 클럽 룩이 이 패션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클럽파티는 뉴욕이나 런던 등에서 시작해 전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클럽문화로 대개 오후 9시쯤 시작해 새벽 3시쯤 마무리되며, 이 클럽파티의 코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의 음악과 춤, 그리고 패션의 어울림이다. 클럽 룩의 기본은 자신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유분방한 스트리스 룩으로 크러버들의 독특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¹⁷⁾

신세대들 사이에서 파티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들의 파티는 거추장스럽지 않으며 자유로움과 개성을 맘껏 표출하는 드레스를 입고 벌이는 호화롭지 않고 격식을 차리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신세대 취향의 파티 문화는 격식을 요구하는 파티의 드레스 코드(dress code)를 벗어나 참석자 모두 부담없이 즐기는 '편안함'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다.

드레스 코드란 복장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넓게는 집단이나 사회의 옷차림을 정하는 것이고 좁게는 파티 모임 등에서 특정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이 집단에 소속돼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소속감의 공유와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로 우월함을 느끼고자 함에 있다. 드레스 코드는 파티를 재미있고 멋지게 만들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통하게 하고 드레스 코드가 공통의 화제를 만들어 낸다. 이 드레스 코드가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¹⁸⁾

<그림 1>은 파티 청바지 디자이너로 더 잘 알려진 이진윤의 작품이다. 그는 뉴질랜드 여행 시, 풀장이 있는 파티공간에서 한 쪽에서는 당구를 치고 맥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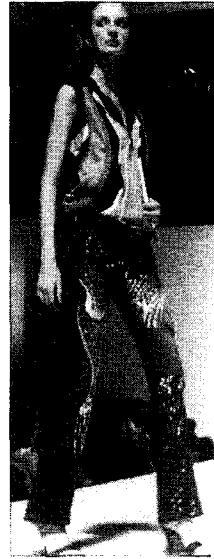
들고 춤출 수 있는 스탠딩 파티를 즐기는 그 곳의 클럽문화를 보고 파티 청바지를 생각해 냈다. 즉 드레스를 입을 수 없는 캐주얼한 파티 문화를 즐기는 옷이 바로 파티 청바지이다. 파티 청바지는 소가죽과 워싱된 부분을 조합하고 보석과 진주, 레이스를 달아서 표현했다.¹⁹⁾ 이진윤의 데님소재 의상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데 그것은 최근의 파티에서는 별다른 준비도 필요 없으며 옷차림도 평소의 깔끔한 차림새면 충분하기 때문에 캐주얼함과 화려함이 조화를 이룬 그의 작품이미지 때문이기도 하다.

<그림 2>는 하이패션에서 선보였던 임현희의 작품으로 데님의상의 이미지가 캐주얼함과 클래식한 실루엣이 어우러져 세련되고 신선함을 주는 의상으로 편안함을 준다. 두드러진 장식없이 순수한 데님만을 가지고 데님 특유의 캐주얼함에 드레스의 우아함을 접목시켜 더욱 여성스러움을 돋보이게 한 의상이다. 즉 상류층의 사교 파티라기보다는 대중적 수준의 캐주얼 파티에서는 복장도 자유복 차림이 많으며 편안히 대화하고 즐길 자세만 있으면 된다. 이러한 파티 문화의 형성은 패션에 있어서 데님의상의 장식성에 더욱 관심이 높아졌으며 새로운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림 3>의 Iceberg 작품은 데님 소재에 화려한 자수를 놓은 원피스드레스로 거칠고 질긴 소재의 특성을 반전시켜 여성적이고 우아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그림 4>의 Laura Biagiotti 작품 역시 데님 소재에 우아한 레이스로 가장자리를 처리하여 미니멀한 이미지를 보이면서도 화사하고 캐주얼한 파티 의상에 응용할 수 있는 작품이다.

김민정, 채금석²⁰⁾의 연구에 의하면 화려한 깃털장식, 우아함, 아름다움, 귀족성 등의 과시적 속성이 디자이너 브랜드 진즈를 통해 표출되었으며, 자수와 비즈 기법으로 부와 신분을 과시하려는 새로운 상징적 코드가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것은 데님이란 소재가 가지는 대중성이 장식화되면서 매력적인 의상 아이템이 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파티 문화와 접목된 데님의상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즉 Just Cavalli의 작품 <그림 5>의 경우에서처럼 데님소재와 모피와의 어울림

을 통한 화려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데님의 상에서도 그러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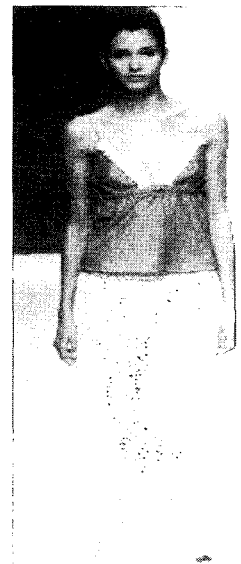
<그림 1> 이진윤, 파티 청바지, 2002 출처: Fashionbiz, 2002. 9.



<그림 2> 임현희, 2002 F/W 출처: Fashionbiz, 2001. 12.



<그림 3> Iceberg, 2003 S/S 출처: Collection, p. 351.



<그림 4> Laura Biagiotti, 2003 S/S 출처: Collection, p. 372.



<그림 5> Just Cavalli,
2003/4 F/W

출처: Collection, p. 341.

파티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요즘, '파티 소사이어티'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파티 마케팅을 통해 관련 업체들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²¹⁾

본래 서양의 사교문화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는 파티 문화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빈번히 열리며 파티의 종류에 따라 에티켓이나 패션이 다르지만 몇가지의 격식 있는 파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파티에서는 간편한 복장을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서구식 파티 문화가 서서히 그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상에 있어서도 데님의상의 간편하면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장점을 살린, 공예적 기법이 가미된 데님의상이 파티룩으로 표현되고 있다.

2. 데님의상과 그리기 문화

2000년 이후 뉴욕 뒷골목이나 낡은 건물, 공중화장실에 가면 종종 볼 수 있는 '그라피티(graffiti)'가 의류와 가방 그리고 신발에 사용되면서 신패션의 흐름으로 부상하였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스프레이나 래커, 연필, 분필, 물감 등 다양한 도구로 벽면이나 소품에 개성껏 표현하는 그라피티는 힙합문화의 한 장르로써 브레이크 댄스, 랩 등과 더불어 청소년 문화의 하나로 전세계에 급속 확산되고 있다.²²⁾ 젊은이들 사이에서 중요한 문화코드로 인식되면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힙합 장르는 그 요소인 그라피티가 패션과 접목되면서 그리기 문화의 근원적인 배경이 되었다.

하이패션에서도 루이 비통(Louis Vuitton)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노그램 문양의 갈색 가죽 가방에 'LOUIS VUITTON'이라고 흰색으로 휘갈겨 쓴 그라피티를 선보였으며, 크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 그리고 마크 제이콥스(Marc Jacobs)가 피날레에 입고 나온 'Oh! Savage'란 낙서 등은 지금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카스텔 바작(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만화를 그린 그라피티의 의상이나 클로에(Chloe)의 파인애플이 그려진 티셔츠 뒤에 'Keep your Bananas off My Melons'라든가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의 펜으로 낙서를 한 듯한 프린트 의상 등은 최근 더욱 부상되고 있는 그리기 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²³⁾ 이처럼 하이패션에서의 그라피티는 의상에서 파격적인 특성을 줌으로써 정장보다는 캐주얼 의상에 그리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더욱 그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원색의 화려한 만화풍 티셔츠나 대중스타들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나 데님의상은 기능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으로 각종 상품이나 팝아트적인 요소들의 조합으로 실크스크린 기법을 응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수작업으로 직접 그리거나 물감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선한 감각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톡톡 튀는 형광색으로 인물화나 추상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등으로 유풍하고 재미있는 의상들은 젊은이들에게 선호되는 아이템이 되고 있다. 더 나아가 환경오염이나 전쟁과 공포, 기아 등의 정치적인 메시지 등을 패션화 함으로써 그리기 문화의 역할이 패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데님소재에는 장식이 아닌 워싱기법으로 마치 연기가 뿜어 올라온 듯한 표현이나 흰색으로 워싱을 해서 흰색물감을 쓴 듯하여 파란 하늘에 뭉게뭉게 구름이 퍼져있는 듯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게 하는 표현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 바로 <그림 6>의 Chriatian Dior 작품, <그림 7>의 Dolce & Gabanna의 작품과 <그림 8>의 우리나라 <Mool> 브랜드의 작품에서 처럼 워싱된 바지를 통해 그러한 그리기의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그림 9>의 경우는 우리나라 <X in X>브랜드의 데님의상으로 인디언의 이미지가 그려진 다른 데님소재를 덧붙임으

로써 수작업을 통한 독창적인 감각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질기고 강하여 그리는 작업의 바탕으로써의 조건이 충족되는 데님소재가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화려하게 장식된 데님의상의 비중이 패션에서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인간의 내적 욕구를 의상 위에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점이 패션에서 새로운 문화의 흐름으로 위치를 차지하면서 자유롭고 실험정신이 담겨진 그리기 문화로써 그 몫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그리기 문화는 인류가 존재하면서 생장과 전개, 소멸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다양한 양식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낙서 표현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욕구표현으로 작품화되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형식적 표현주의 미학이 출현하면서 그 동안 평가절하 되어왔던 이미지 표현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²⁴⁾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림이나 문자로 외면화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표현욕구는 점차적으로 미술의 영역으로 수용되고 해석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리기를 통해 한 시대의 미술사조가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 표출 양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것은 앞으로 현대 패션 영역에 더욱 다양하게 응용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는 감각표현에는 과거의 무게감을 벗어버리고 좀 더 윤택있고 재미가 있는 요소가 의상 곳곳에 사용돼 천편일률적인 패션에 식상해진 사람들에게 차별화된 패션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독특하게 장식된 데님의상은 새로운 느낌의 의상으로 변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벼운 파티웨어로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현상을 패션을 통해서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림 10>의 Jean Charles de Castelbajac의 작품과 <그림 11>의 런던과 파리매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님의상으로 패션디자이너들은 이들 작품을 통하여 유티와 유희성을 느끼게 해준다. 특히 프린트를 의상에 가미해 줌으로써 흥미를 돋우는 그리기 문화의 단면을 데님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패션에서의 동화나 우화의 환상적 표현은 이성적인 의식세계에만 한정되어 있는 현대인들의 고갈되고 매마른 정서에 전인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

는 카타르시스적인 의미의 유머를 느끼게 한다.²⁵⁾ 또한 현대 패션에 있어서 재미있는 유머감각의 패션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션이 현대 미학과 대중문화 여흥의 한 요소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철학 미학의 분야에서 유희성이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충동의 발산을 위해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과 패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이 다.²⁶⁾ 따라서 모더니즘에 의해 기계화되고 획일화된 인간사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염증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각종 건물의 내외 벽이나 지하철차 심지어 자신의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유희를 충족하는 낙서처럼 굵거나 휘갈겨 그리거나 문자 또는 드로잉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리기 문화는 데님의상에 직접 그리거나 도색류를 뿌리는 것, 그리고 낙서나 메시지를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응용되어, 기존의 틀과 형식을 벗어난 더욱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데님의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상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무한한 표현의 장으로서 데님의상이 현대문화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6> Christian Dior,
2000/1 F/W
출처: Gap pre-a-porter



<그림 7> Dolce &
Gabanna, 2001/2 F/W
출처: Gap pre-a-porter



<그림 8> 캐주얼 브랜드
《Mool》, 2002

출처: Fashionbiz, 200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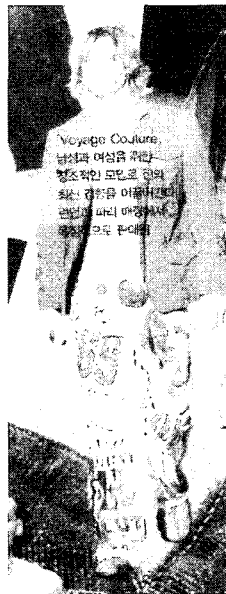
<그림 9> 캐주얼 브랜드
《X in X》 2002/03 F/W

출처: Fashionbiz, 2001. 10.



<그림 10> Casteljajac,
2002/3 F/W

출처: Collection, p. 102.



<그림 11> Voyage
Couture, 2003

출처: Fashionbiz, 2003. 7.

3. 데님의상과 해체 문화

해체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비정상적이고 비효과적이며 반역적인 아방가르드의 완전무결성을 열망하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상반된 입장에 처해 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이고 무의식적으로는 부르주아 사회의 본질이며 나아가 그 정체 문제의 본질이다.²⁷⁾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용어는 건축사가이자 비평가인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가 어떤 한 세대 건축가들 전체를 지칭하여 사용했었다. 그는 1978년 건축 디자인의 한 논문에서 포스트모던 양식과 말기 모던 양식을 구분하고자 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으로 정의되고 있다.²⁸⁾

그러나 명확한 개념이나 한계가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단어가 세련된 대화의 대명사처럼 마구 사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며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기존의 관념들을 해체하고 요란하게 분해, 조립하여 정작 그 실상을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²⁹⁾

서양철학과 지성사의 반향이라고 일컫는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철학을 현대철학사에서는 해체주의라고 부른다. 즉 플라톤 이후의 모든 이론과 사상 그리고 진리에 관한 학설을 해체하는 것이다.³⁰⁾ 데리다의 해체주의는 모더니티의 해체를 겨냥하였으며 그 모더니티는 2천여년 서양정신사의 결집과 같다고 보기 때문에 서양지성사의 해체가 곧 해체주의의 철학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³¹⁾ 김민자³²⁾의 연구에 의하면 데리다를 모던과는 다른 초월적인 의미인 모더니즘 기존질서를 해체, 분산시킴으로써 시공을 초월하는 미적 이상형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준다는 탈현대 이론의 주창자들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학과 예술 면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체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중의 하나인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스타일의 소멸을 말하는 주체의 해체³³⁾라는 특성이 패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데님의상을 통

해서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양학미³⁴⁾의 연구에 의하면 해체는 혼성모방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패션에서는 오리지널한 패션디자이너를 차용하여 원본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고 하위 문화 스타일과 조합되어 원래 가지고 있던 내적인 의미를 배제시킨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따라서 고급문화와 하층계 여겨졌던 패션이라는 영역의 경계가 해체된 모습이라는 것이다. 즉 혼성모방 및 노스텔지어의 만연함, 무감각에 가까운 알пах함과 같은 특징들 모두는 기본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인 진단을 입증해 주고 있다.³⁵⁾

이와 같은 배경으로 형성된 해체 문화는 21세기 데님의상에서 자유분방한 기법으로 표현되었다. 즉 전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을 일단 뒤집어 보고 기존의 개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해체주의를 근거로 하는 해체 문화는 20세기말 포스트모더니즘 양식과 함께 융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2>은 Alexander McQueen의 데님소재 작품으로 소재를 자유분방하게 찢고 올을 풀고 구멍을 내는 등 전통적인 미의 이미지를 파괴한 해체를 통한 전위적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해체이미지의 의상은 기발한 착상이나 놀라운 패션 표현은 규범화된 사회로부터 부과된 억압과 긴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방감을 준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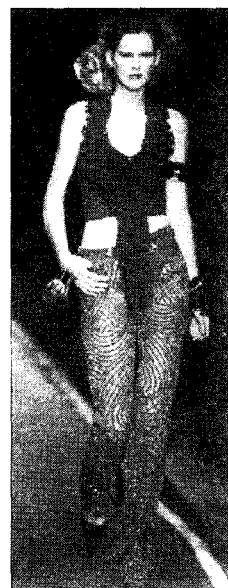
더욱이 해체, 과장, 확대, 축소, 과도함, 불연속, 혼성모방의 포스트모던 패션은 비주류인 다양한 하위 문화 스타일과 주류인 일반 스타일이 혼합되면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볼개성적인 스타일을 거부하고 민주적이고 자유분방한 방식으로 자기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³⁷⁾

이러한 해체 문화의 단면은 Jean Paul Gaultier의 작품인 <그림 13>에서는 의도적이고 정교하게 소재를 해체하여 문양처럼 보이게 하는 기발한 착상을 데님의상을 통하여 표현하였으며 John Richmond의 작품인 <그림 14>과 Dolce & Gabbana의 작품인 <그림 15>에서는 데님소재를 찢어서 헤어지게 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해방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16>의 Givenchy 작품의 경우 빈티지한 또 다른 데님소재를 덧붙여 누비거나 무작위의 스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해체의 효과를 표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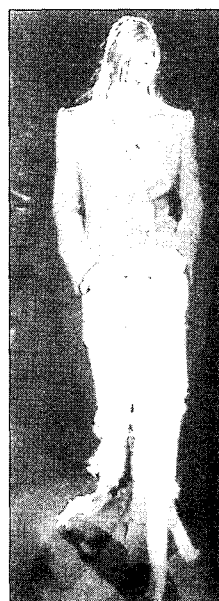
작품이다.



<그림 12> Alexander McQueen,
2000/1 F/W
출처: Gap pre-a-porter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2001 S/S
출처: Gap haute couture



<그림 14> John
Richmond, 2001/2 F/W
출처: Gap pre-a-porter



<그림 15> Dolce &
Gabbana, 2003 S/S
출처: Collection, p. 292.



<그림 16> Givenchy,
2003 S/S

출처: Collection, p. 95.

이처럼 패션 디자이너 진즈 패션에서는 고정관념을 일탈하여 슬래쉬, 구멍, 찢기 기법으로 육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거나 진즈의 원형이 파괴된 형태를 디자이너 특유의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나타나며, 20세기 후반 일부터 진즈 패션을 슬래쉬하고 손상하고 찢고 흠을 내는 방법으로 복식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게 되었는데 기존 복식의 목적론을 해체하고 빈곤해 보이는 디자인 요소인 패치워크, 짜깁기, 탈색 및 퇴색 등을 통해 복식의 고정관념을 해체하는 것으로 그런지 룩 양상을 띠게

한다.³⁸⁾

이것은 데님의상에서 올풀림이나 올뜯기, 의도적인 슬래쉬와 찢기 등의 방법으로 소재의 해체를 통해 전통적인 복식에 대한 의미를 탈피한 포스트모더니즘 특성의 하나인 해체 문화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고찰할 수 있다.

<그림 17>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인간적인 친화와 정신적 위안을 찾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갈망과 욕구가 수공예적 요소들로 화려하게 장식화 되어가는 데님의상에 표현되고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이에 내재된 미적 의미를 연구해 볼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복식사 관점에서 장식화 된 데님의상의 위상과 앞으로 전개되어 갈 데님의상의 발전 속에 미적 의미와 인간의 정신적 측면이 어떻게 내재되어있는지 고찰·분석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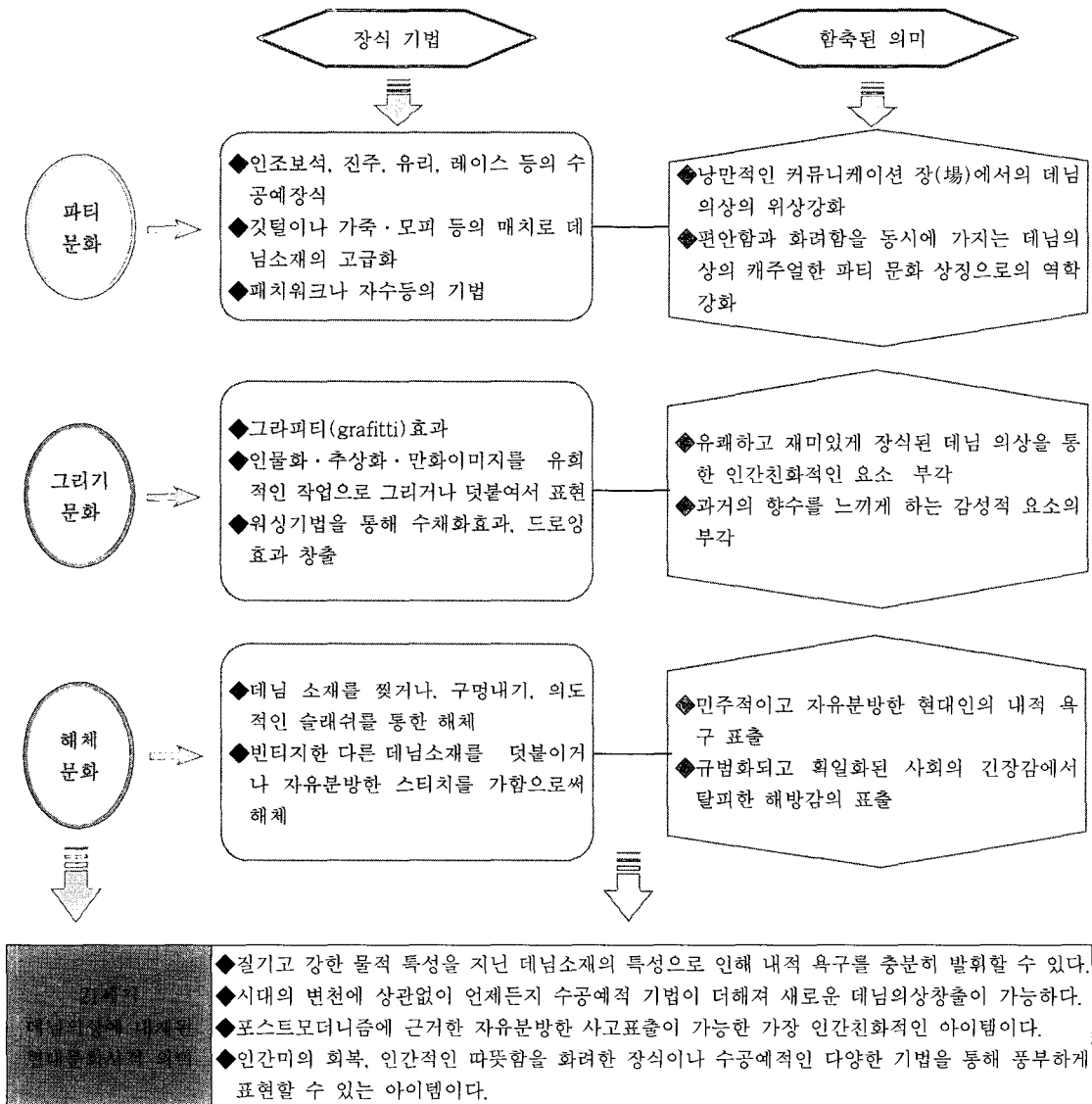
데님의상에 표현되고 있는 멋의 근간은 파티 문화, 그리기 문화, 해체 문화를 바탕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양의 사교문화의 하나로 인지되고 있는 파티 문화는 일상의 한 부분으로 몇 가지의 격식있는 파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파티에서는 간편한 복장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서구식 파티 문화가 서서히 그 수요를 늘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파티 문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데님의상은 화려한 인조보석이나 패치워크, 그리고 정교하게 수놓은 최첨단 테크닉을 이용한 문양의 염색뿐만 아니라 깃털이나 동물가죽과 모피 등을 이용해 편안하면서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장점을 살린 파티 룩으로 여성적인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둘째, 오늘날 각종 건물의 내외 벽이나 지하철 심지어 자신의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유희를 충족하는 낙서처럼 긁거나 휘갈겨 그리거나 문자 또는 드로잉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그리기 문화는 데님의상에도 응용되어, 기존의 틀과 형식을 벗어난 더욱 인간적인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데님의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기 문화 관점에서 데님의상은 그림을 천으로 장식하거나 데님위에 덧붙임으로써 '드로잉 효과를 나타내거나 워싱처리하여 수채화와 같은 이미지 표현 그리고 유희적이고 만화나 장난스러운 이미지를 페인팅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표출함으로써 낭만적인 멋을 자아낸다.

셋째, 해체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데님의상의 가장 큰 특징은 빈티지스타일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것은 데님의상에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슬래쉬, 구멍, 찢기 등의 방법으로 육체의 일부분을 노출하거나 의상의 원형이 파괴된 형태를 통해 기존 복식의 전통적 관념을 벗어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 문화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

즉 데님소재는 질기고 강한 물적 특성으로 디자인이나 착용자의 미적 감각을 개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시대가 변화하여도 기존의 모습에 또 다른 기교를 언제든지 더해져도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멋을 창출할 수 있어서 다른 의류 소재와 차별화된다는 물리적인 장점



<그림 17> 데님의상의 현대문화사적 분석

이 있다. 따라서 데님의상을 통해서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자유로운 해방감을 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미의 회복이나 인간적인 따뜻함에 대한 욕구를 화려한 장식이나 수공예적인 다양한 기법을 통하여 풍요롭게 표현함으로써 그 자체만의 독특한 멋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데님의상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들이 최근에 이르러 데님의상에 기교적인 장식성을 부여함으로써 독창적

인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게 된 이유라고 인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Thames & Hudson (1998). *Dictionary of fashion and fashion designers*. T&H, p. 80.
- 2) Jean의 유래 (2001). 검색일 2004. 6. 30 자료출처 <http://>

- www.hihome.pe.kr/blue/main/jean/2.htm
- 3) 文化出版局編輯部 (1990). 服飾事典. 文化出版局, p. 546.
- 4) 타이콘 패션연구소 편저 (1997). 남자옷 이야기 2. 시공사, p. 115.
- 5) 새금광의 발견에 따른 사람들의 쇄도, 1849년 California 에 있었던 것이 두드러진 예이다. 시사영어사 사전편집실 (1996). *English Korean dictionary*, 시사영어사, p. 1102.
- 6) 이한수. Levi's, 검색일 2004. 6.30 자료출처 <http://levisyihansu.com.ne.kr/hidtory.html>
- 7) 김민정, 채금석 (2002). 진즈패션의 상징성 연구. 복식 52(7), pp. 156-157.
- 8) 청바지 (2004. 4. 1). 주간한국, 검색일 2004. 6. 30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9) 브라질리언 진은 체형에 맞게 늘어나 완벽한 체형의 형태를 잡아주고 허리라인에 맞게 잘 늘어나는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감을 편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소재로는 니트 소재와 라이크라 소재를 자임기법으로 사용해 제작했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데님소재와 달리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게 만들어 효율성을 높였다.
- 10) Fashionbiz (2002. 6). 지금 세계는 Jeans 퍼레이드!!, 섬유저널, p. 154.
- 11) Fashionbiz (2002. 9). Hand craft on fashion. 섬유저널, pp. 334-335.
- 12) 파티의 마술사 파티플래너, 사교모임이라고? 상생의 놀이조 (2004. 6. 9). 일간스포츠, 검색일 2004. 7. 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3) 전여옥 (2003. 11. 11). 파티는 우리 삶의 CF광고. 매일경제, 검색일 2004. 7. 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4) 이제는 일상에서 '파티'를 즐긴다 (2000. 9. 2). 시티라이프, 검색일 2004. 7. 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5) 테마파티, 회식은 가라 (2002. 10. 31). 문화일보, 검색일 2004. 7. 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6) 파티문턱 '확' 낮쳤어요 (2002. 7. 4). 한국일보, 검색일 2004. 7. 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7) 더 튀고 세련되게 클럽갈 땐 '클럽룩' (2002. 10. 16). 스포츠투데이, 검색일 2004. 7. 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8) 심현정, 드레스 코드 (2000. 11. 24). 한국경제, 검색일 2004. 7. 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19) Fashionbiz (2002. 9). 즐거운 '파티청바지들'. 섬유저널, pp. 306-307.
- 20) 김민정, 채금석 (2002). *op. cit.*, p. 162.
- 21) 기업들, 파티소사이어티 구축바람 (2004. 4. 21). 머니투데이, 검색일 2004. 7. 2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22) 국내 첫 '그라피티' 개최 (2000. 5. 26). 스포츠투데이, 검색일 2004. 7. 4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23) 그라피티 패션 부상 (2001. 3. 12). 매일경제, 검색일 2004. 7. 4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24) 이효진 (2002). 서양복식에 나타난 Graffiti의 기호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학회지, 10(3), p. 215.
- 25)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p. 360.
- 26) 하지수 (1994). 현대 패션에 표현된 유희성. 복식, 22, p. 75.
- 27) 휴 실버만 저, 윤호병 역 (1992). 포스트모더니즘, 고려원, p. 93.
- 28) 브랜드 테일러 저, 김수기·김진송 역 (1993).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리얼리즘, 시각과 언어, pp. 52-53.
- 29)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현상에 대하여 (2004. 6. 14). 검색일 2004. 7. 4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
- 30) 김형호 (1999). 데리다의 해체철학. 민음사, p. 15.
- 31) 김형호 (1999). *op. cit.*, p. 382.
- 32) 김민자 (198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1). 복식, 37, p. 114.
- 33) 강명구 (1996). 소비대중문화와 포스트모더니즘. 민음사, p. 222.
- 34) 양학미 (1999).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2-23.
- 35) 김수기·김진송 역 (1993). *op. cit.*, p. 56.
- 36) 진경옥, 박민여 (2000).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혼성모방. 복식, 50(5), p. 155.
- 37) 정현숙 (1995). 패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3.
- 38) 김민정, 채금석 (2002). *op. cit.*, p. 159.